

화물연대 협상 타결

운송료 19% 인상 ... 건설노조 파업은 계속

광주·전남 물류 속속 정상화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 협의회가 19일 운송료 협상에 전격 타결함에 따라 일주일간 계속된 파업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 협의회는 이날 부산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재개된 제5차 협상에서 '운송료 19% 인상 및 서플 운송료 10% 인상'과 '2009년부터 표준요금제 시범 실시 및 법제화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사업장별 운송협상으로 전환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아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아 물류마비 사태가 해소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이 4일째로 접어들면서 각 공사 현장도 대부분 일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까

지 화물연대와 대형업체, 운송사 간 협상이 타결된 곳은 40여개 사업장으로 협상 타결률이 30%에 달하고 있다.

이날 여수산단의 경우 5톤 이하 카고와 탱크로리 차량들이 운행재개에 나섰으며 일부 비조합원들이 운송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광양제철도 이날 서강기업, 세방 등 운송사와 운송료 20% 인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전남 지역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이날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운송료를 32% 인상하기로 협상을 마무리, 제품 출하에 들어갔다.

광주 기아자동차가 협상을 위임한 글로벌비스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현대캐리어와 운송료를 22% 인상하기로 합의, 협상 타결 전망을 밝

게하고 있다. 또 LG전자의 물류를 맡고 있는 하이로지스가 이날 운송료 인상에 전격 합의, LG이노텍, 한국알프스사 등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수출물량의 90%를 차지하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광양항컨테이너부두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데다 건설기계노조가 4일째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건설 현장의 조업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여수 읍촌산단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에 투입되던 건설기계 120대 중 덤프트럭 등 103대가 파업에 참여해 공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덤프트럭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도가 높아 골재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로 공사 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영기·인현주기자 penfoot@

향토기업 건조 첫 초대형 벌크선 오늘 해남 대한조선서 명명식



대한조선소 해남조선이 20일 첫 선박 명명식을 앞두고 19일 밤 해남군민과 함께 하는 대동세상 한마당 잔치를 갖고 있다. 17만500t 벌크선인 이 배는 오는 27일 노르웨이 선주측에 인도돼 오대양을 누빌 전망이다. <관련 기사 11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美 정부 보장 안하면 고시 보류”

李 대통령 쇄고기 회견 “30개월 이상 차단”

경제계 “환영” ... 대책회의는 “알맹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쇄고기 파문 등과 관련, “아무리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빠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 쇄고기 수입과 관련, ‘재협상’ 대신 ‘추가 협상’을 택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미국이 30개월령 이하 쇄고기 수입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고시를 보류하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이에 대해 국민대책회의와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쇄고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계에서는 “이번 회견이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쇄고기는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쇄고기가 들어오면 검역을 하지 않고, 검역 이전에 반송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적 쇄신의 의지를 밝히고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가스·물·전기·건강보험 등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서민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 분배와 복지 정책 중시 방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고 부시 대통령 정부 재임 중에 한미 FTA가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2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운하사업준비단에 대해서도 “해체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더 이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연남뉴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남 화원관광단지 내달 개장

착공 14년만에 ... 남도해양관광시대 ‘활짝’

해남 화원관광단지가 착공 14년만에 오는 7월 18일 인공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남도해양 관광시대를 열어나간다.

19일 해남군과 한국관광공사에 따

르면 화원면 주광리와 하봉리 일대 509만㎡(154만평)에 조성중인 화원관광단지는 현재 기반조성과 해수욕장, 골프장 등 주요 사업이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다음달 18일 주광리 해변에 수중보를 쌓고 모래를 깔아 만든 길이 1km의 인공 해수욕장인 ‘블랑코(하얗다는 뜻의 스페인어)비치 해수욕장’을 시범 개장한다. 해수욕장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텐트 빌리지와 머드 체험장, 축구장, 어린이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또 보성건설㈜이 시공 중인 화원제 18홀 골프장과 한국관광공사의 퍼블릭 9홀 골프장도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 골프장은 모든 코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조성돼 있어 화원관광단지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원관광단지는 이외에도 오는 2011년까지 골프리조트와 호텔, 마리나리조트, 별장촌 등 각종 숙박시설을 비롯해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씨월드 해안유원지, 꽃을 주제로 한 남도플라워파크, 3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조성된다.

한편 1994년 시작된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외환위기와 토지 매입을 둘러싼 주민과의 마찰로 지지부진하다 2004년 기반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0년 전통의 정인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대한조선 첫 건조선박

17만톤급 벌크선 명명식

2008년 6월 20일 11시 30분

대한조선주식회사

대한조선의 해운을 위하여
대한조선의 해운을 위하여
대한조선의 해운을 위하여